

부산 기장군에 8000억 규모 '이차전지 생산기지' 짓는다

2030년 시장 규모 1000조
금양과 투자양해각서 체결
부산지역 우수 인재 우선 채용

부산시는 3일 시청에서 금양과 3억 셀 규모의 이차전지 생산기지 건립을 위한 800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투자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류광지 금양대표이사직접 서명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금양은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생산시설 신설과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특히 부산 지역 우수 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금양의 투자와 고용 창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금양은 앞으로 부산 기장군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 내 약 18만㎡의 부지



부산시가 금양과 이차전지 생산기지 건립을 위한 800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부산시

에 3억셀 규모의 이차전지 생산을 위한 공장을 2026년까지 건립하고, 이곳에서 근무할 연구, 관리, 생산 등에 필요한 신규인력 1000여명 고용하여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양은 1955년에 설립한 부산의 향토기업이자 세계 1위 친환경 발포제

기업이라는 명성을 구축해 오고 있다. 2020년부터는 수소연료전지 사업 추진을 위해 사상구에 연구개발센터를 건립 중이며, 작년에는 국내에서 세 번째로 '원통형 이차전지' 개발에 성공하는 등 미래를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위상을 견고히 하고 있다.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의 급증으

로 이차전지 시장 규모가 2030년이면 1000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는 시장으로, 금양은 이번 투자를 통해 3조 원 매출을 목표로 이차전지 생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향후 이차전지 순환 사업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금양의 이번 대규모 투자 계획과 신규 일자리 창출 소식은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힘든 시기에 부산시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희소식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부산이 미래 핵심 산업인 이차전지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토기업 금양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금양과 부산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여주시 노인 맞춤형돌봄 '장관상' 수상

여주시가 2022년도 노인복지사업 부문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여주시노인복지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취약노인보호사업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과 개인상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3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여주시노인복지관은 전라남도 사회공헌 우수 프로그램 '에코하우스'로 2022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 기관상을 수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혁신 공모사업에 당선돼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 기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수(전남)=김용환 기자 jijacecom@

영양군언론인협회 영양군에 라면 50박스 기탁

영양군언론인협회는 3일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영양군에 150만원 상당의 사과의 라면 50박스를 기탁했다.

메트로신문 김태우 기자가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영양군언론인협회는 정론직필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새로운 출발을 위해 지난 2019년 2월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계속되는 불경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 소중한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기부해 주신 물품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영동(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산시 새로운 도시 슬로건 후보 공개

20년 동안 부산의 슬로건이었던 '다이너믹 부산'을 대체할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가 실시된다.

부산시는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부산도시브랜드 공식플랫폼 '상상온(On)'에서 도시 슬로건 최종후보 3개 안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1만 3000여 명의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최종후보를 3개 안으로 압축했다. 시민 공모에는 총 2757명이 참여해 총 3248건을 응모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산청군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공모 선정

경남 산청군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3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산청군은 이미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시행 중이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고 안전·소방, 교통, 생활·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역문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도로개설 예산 2455억 확보 울산시 "사통팔달 망 기대"

국비 1908억원, 시비 547억 마린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협의중

울산시는 올해 도로개설 사업 예산으로 국비 1908억원과 시비 547억원 등 총 2455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등 시가 추진 중인 올해 현안 도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비 도로사업은 ▲울산외곽순환도로 1581억원 ▲농소~외동 국도 200억원 ▲청량~옥동 국도 95억원 ▲제2명촌교 건설 10억원 ▲국도 14호선(울주범서~경주시계) 확장 20억원 ▲국지도69호선(울주 상북~운문터널) 개량 2억원 등이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공사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의 진행 중이다.

농소~외동 국도 건설사업의 경우, 천마터널 등 구조물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9월에 개통한 이예로 구간과 연결하는 청량~옥동 국도 건설사업은 올해 10월 공사가 완료돼 부산과 울산, 경주를 연결하는 국도7호선 전체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제2명촌교 건설사업, 국도14호선



지난해 울산 남구 옥동 옥동육교에서 '이예로 도로개설공사(옥동~농소)' 전 구간 완전 개통식 모습.

(범서~경주시계) 확장사업과 국지도 69호선(상북~운문터널)은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시비도로사업은 ▲연양파출소~서부리 도로확장 162억원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 도로개설 53억원 ▲신현교차로~구 강동중학교 도로확장 50억원 ▲장성포순환도로 확장 40억원 ▲덕정교차로~온산로 도로확장 32억원 ▲동천제방경용도로(좌안제) 30억원 ▲범서하이패스IC~천상하부램프 도로확장 30억원 ▲달천아이파크(I park)~천곡천간 도로개설 29억원 ▲길천산단~지화마을간 도로개설 20억원 등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밀양 '스마트 거리공연', 국토부 공모 선정

생활밀착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경남 밀양시의 '스마트 거리공연 서비스'가 국토교통부의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국비 5억원, 도비 6700만원을 확보했다.

스마트 거리공연 서비스는 내일동 남천강변로 해천생태공원에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버스킹(길거리 공연)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도심에 스마트한 문화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IoT기술로 길거리공연을 지원하는 스마트 버스킹 시설과 단독으로 미디어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투명한 스크린을 활용한 인터랙션 미디어, 그리고 공연장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조명장치 등이 설치된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어 길거리 공연문화를 활성화하고, 평상시는 각종 미디어 영상 송출과 LED 조명을 활용한 포토존 등으로 아름다운 밀양야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



진주 복합혁신센터 전경

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5월 개소

기업지원실·공유오피스 조성

경남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해 창업·정착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복합혁신센터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

진주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 착공 후 2년 4개월 만인 올해 1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마감공사가 한창이다.

복합혁신센터는 270억원(국비 99억원, 도비 64억6000만원, 시비 106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중무공

동내 5329㎡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005㎡ 규모로 건립된다.

센터에는 이전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실과 공유오피스가 조성되고 혁신도시내 부족한 정주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보육시설과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관계자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이전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 지원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 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도 신산업 中 1000만 원 지원

경북도가 이달부터 '고졸청년 신산업 분야 내일 찾기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사업대상은 도내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및 미취업 고졸청년이다. '신기술'은 디지털 기반, AR, 빅데이터, AI 등을 말하며, '신산업'은 스마트제조, 바이오, 반도체, 미래자동차 등이다. '고졸 청년'은 최종학력

이 고졸이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말한다.

경북도는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미취업 고졸청년 20명 규모(기업당 최대 2명)에 대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안동(경북)=김성복 기자 ksb8100@